

春·秋 兼用 兩親 限性班紋品種 “兩元蠶” 育成

강필돈, 김계명, 손봉희, 우순옥, 류강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농가보급 누에품종은 교잡종으로 보급되므로 採種前에 정확하면서도 생력적인 암수감별이 요구된다. 그간에 육성된 限性班紋品種은 전부가 중국종계만 限性系統인 片親限性 품종이었으나, 1998년에 兩親原種이 모두 유충무늬로 암·수 감별이 가능한 양친 한성반문(♀:形蠶, ♂:姬蠶)품종 “兩元蠶”을 육성하게 되었다. 양원잠의 주요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양원잠의 일본종계 원종 잠143은 P8503과 H5R1간에 교잡육성한 한성반문품종이고 중국종계 잠144는 8190과 M8312을 교배한 F₁으로 육성한 한성반문품종이다.
2. 1998년 춘기 생산력 본 검정 결과,
 - 가. 양원잠은 強健性의 尺度인 化蛹比率이 95.1%로 대조 금옥잠보다 지수 1%가 높아 강건함을 알 수 있었다.
 - 나. 양원잠은 全繭重이 2.27g으로 대조 금옥잠보다 5%가 가볍고 1만두 收繭量은 21.2kg으로 대조 대비 4%가 적었다.
 - 다. 조사성적에서 양원잠은 繭絲長이 대조 1,373m보다 169m 짧고 繭絲量은 46.5cg으로 대조대비 9%가 적었다.
3. 양원잠의 蠶種生産能力에 있어 일본종계 원종 잠143은 産卵數가 539개로 대조 금옥잠의 잠125 보다 5%가 많았으며, 중국종계 원종 잠144 역시 산란수 645개로 금옥잠의 잠140 보다 30%나 많았다.
4.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양원잠”은 강건성을 제외한 사육 및 조사성적 모두에서 평가해 볼 때 최상의 품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암·수감별 차원에서 일반적 방법인 번데기의 성장에 의한 감별 방법보다 그 노력을 70%나 절감할 수 있어 고생력화를 지향하고 있는 현실에 절실히 요구되는 특수품종이라고 할 수 있다.